

2008년 Shelf Life International Meeting (SLIM) 참가기

이동선

경남대학교 식품생명학과

이번에 3회를 맞는 SLIM 2008 학술대회는 2008년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이탈리아 나폴리 근처의 Ischia섬에서 열렸다. SLIM 학술대회는 매 2년 마다 이탈리아 식품포장연구회 (Scientific Group of Food Packaging)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포장식품의 shelf life modeling, shelf life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하여 진지한 강의와 포스터 발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는 통상 150명 정도로 작은 행사이지만 학술대회는 매우 진지하면서 이탈리아식의 자유로움과 열정 속에서 진행된다. 본인은 이탈리아 식품포장연구회의 회장인 밀라노 대학교의 Luciano Piergiovanni 교수와의 인연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3번의 행사에 모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이탈리아 국립연구위원회의 후원 하에 나폴리 대학교 식품과학과와 재료생산연구소가 주관하여 이루어졌다.

학술대회 하루전인 6월 24일에 행사장인 Continental Terme 호텔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있는데, Piergiovanni 교수 일행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다.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다음날 행사에 대해서 상의하고 참가자들과 자유로운 사적인 사귀기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자리는 이 meeting이 갖는 독특한 즐거움이다. 맛있는 이탈리아 음식과 즐거운 대화로 서로 간에 격의없는 관심사의 교환이 가능하였다. 25일 첫날 오전에는 ‘안전 포장을 위한 분석적, 규제적 접근’이란 제목으로 유럽에서의 식품포장재의 위생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오후에는 Shelf Life Modeling의 구두발표 session이 진행되었다. 본인은 나폴리 대학의 Mensitieri 교수와 함께 이 session의 좌장을 맡아서 진행하였다. Ireland의 College Cork 대학교의 Gallagher 교수가 ‘engineering packaging design and shelf life modelling’의 주제강연을 하였고, 여러 구두 발표가 다양한 연구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다음날은 shelf life 연장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session이 진행되었고, 기초강연으로서 ‘packaging technologies for food quality preservation’과 ‘controlled release packaging and intelligent packaging for enhancing food quality and safety’를 주제로 스위스 Nestle 연구소의 Y. Wyser박사와 미국 Rutgers 대학교의 Kit L. Yam 교수에 의하여 각각 발표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shelf life 검사 session으로 ‘advanced analytical techniques for shelf life studies’가 스페인 Zaragoza 대학교의 Cristina Nerin 교수에 의한 기초강연이 이루어졌다. 이탈리아 학생을 포함한 유럽의 발표자 중에는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도 했지만, 모든 구두 발표는 매우 진지하게 발표되고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유롭고 여유롭지만, 학문적인 자세에서는 매우 진지하고 열심인 점이 매우 인상적이고 감동적이다.

학술대회를 마친 마지막 날 저녁에는 gala reception이 진행되었는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매우 맛있는 이탈리아 음식과 이탈리아 전통음악의 여흥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서는 필자와 함께, 경북대학교 문광덕 교수, 충남대학교 송경빈 교수가 참가하였는데, 문광덕 교수팀의 대학원생은 포스터 발표우수상을 수상하여 기쁨이 더하였다. 이 모임의 마지막에 다음 2010년 4차 SLIM 학술대회를 스페인의 Zaragoza에서 개최하고 Cristina Nerin 교수의 주도로 준비하기로 결정하고 폐회하였다. 전체적인 참가자는 약 150명 정도이었고 이탈리아에서 70%, 나머지 유럽에서 25%, 나머지 미국 및 아시

아에서 5%정도를 차지하였다. 행사 다음 날은 Ischia 섬을 배를 타고 일주하는 문화관광여정을 가지면서 서로 얘기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날 저녁도 꽤많은 거리를 걸어서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서 준비하고 참가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공 연구영역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학술대회기도 하지만,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협력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넓힐 수 있는 것이 이 학술대회의 특징이고, 필자로서는 다음의 Zaragoza에서의 만남이 기대된다.



<학술대회 마지막날 gala party에서의 한 장면>